

미국마취간호사회 연례학회를 다녀와서

마취전문간호사 위상 확인 ... 세계 리더들과 교류

미국마취간호사회(AANA) 연례학회가 미국 메사추세츠주 보스턴에서 열렸다.

한국에서는 정계선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전 마취간호사회장)가 참석했다. 정계선 이사는 2014년 처음 선출됐으며, 이번까지 3차례 이사로 당선돼 활동하고 있다.

2012년부터 매년 학회에 참석해온 정계선 이사는 "올해 학회에서는 다양한 연구논문이 발표됐으며, 워크숍을 통해 최신 지견을 넓혔다"면서 "특히 마취간호를 이끌고 있는 세계의 리더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마취전문간호사 발전방안 등에 관해 논의하고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정계선 이사가 보내온 올해 미국마취간호사회 학회 소식을 정리해 소개한다.

이번 학회에서는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 논문 발표와 포스터 세션이 진행됐다. 워크숍을 통해 어려운 기도 관리, 초음파를 이용한 신경차단법과 통증관리 등 전문적인 마취간호 교육이 이뤄졌다. 이외에도 새로운 장비를 이용한 마취방법과 마취 관련 신약품, 새로운 기구들이 소개됐다.

학회 개최의 기초장면 또한 매우 인상적이었다. 미국의 해커이며 발명가로 유명한 파블로스 홀만(Pablos Holman)이 연자로 초창기 혁신의 메커니즘에 대해 강연했다. 3D 프린터와 같은 신기술의 발전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 인간생활에 밀접하게 다가오는 AI(인공지능)에 대해 말했다.

특히 전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규모가 컸고, 예년과는 좀 다른 풍경이었다. 미국 마취전문간호사(CRNA)를 고용하기 위한 구인업체들의 부스가 절반을 차지했다. 마취전문간호사들이 부스에서 상담을 하는 모습을 흔하게 볼 수 있었다.

구인업체들은 미국 각 지역의 의료기관들과 네트

워크를 형성하고, 마취전문간호사 인력을 공급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 부스에서는 의료기관의 특징, 주당 근무시간 및 방문무 유무, 대상자들의 중증도, 근무환경 등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해줬다. 연봉 협상도 바로 이뤄지고 있었다. 한마디로 미국은 마취전문간호사들의 천국인 듯한 인상을 받았다.

미국의 경우 마취전문간호사는 8년마다 시험을 통해 자격을 갱신하고 있다. 또한 2022년까지 모든 마취전문간호사 교육과정은 DNP(간호실무박사) 과정으로 전환된다.

한편 이번 학회와 함께 미국마취간호사회 총회가 열렸다. 총회에서는 새 회장으로 게리 브리드지스(Garry Brydges)가 선출됐다. 미국마취간호사회는 5만명이 넘는 회원을 가지고 있다.

| 정계선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



정계선 세계마취간호사회 이사(오른쪽에서 넷째)가 재키 라울즈 세계마취간호사회장(오른쪽에서 둘째) 등 세계 리더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한국의 마취전문간호사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대전시간호사회 소록도에서 임원 연수

대전시간호사회(회장 송용숙)는 '2018년도 임원 연수'를 소록도에서 10월 6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대전시간호사회 임원과 함께 간호대학(부·과)장들이 함께 참여했다.



연수에서는 소록도를 돌아보며 한센인을 위해 진정한 사랑과 봉사를 실천한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삶을 통해 간호의 참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사단법인 마리안느마가렛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연준 신부로부터 마리안느-마가렛 봉사학교 건립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송용숙 회장은 "마리안느와 마가

렛 간호사의 사랑이 소록도를 치유

의 섬, 희망의 섬으로 만들었다"면서 "두 간호사를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적극 참여해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간호협회는 홈페이지(www.koreanurse.or.kr)를 통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 평화상 후보 추천을 지지하는 서명을 받고 있다.

주혜진 기자 hjjoo@

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간호연구학회 학술세미나

한국전문대학간호학(부)장협의회(회장 고순희)와 한국간호연구학회(회장 양경희)는 추계 학술세미나를 10월 12일 개최했다.



이번 학술세미나에서는 '2018년 국내 간호교육의 현안과 발전방안' 주제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이 특강을 했다. 이어 '최소화점을 반영한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개발' 주제로 오수민 수원여대 교수, '제3주기 간호교육인증평가 현안과 대응' 주제로 안혜정 선린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의사소통을 주제로 한 연구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스트레스, 공감 및 자아존중감이 의사소통능력에 미치는 영향(박선정 여주대 교수) △간호대학생이 경

험한 임상실습에서의 의사소통(고가연 강릉영동대 교수)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 유형에 대한 주관성 연구(서문숙 진주보건대 교수) 등 3편이 발표됐다. 임상의 간호문화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한국간호연구학회에서 연구를 지원했다.

주최 측은 "이번 학술세미나가 한국 간호교육의 비전 제시, 학습성과 기반 교육과정 개발 및 의사소통에 대한 간호교육과 연구발전의 토대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규숙 기자 kschung@

강원도간호사회, 임산부의 날 장관 표창받아

강원도간호사회(회장 장희정)가 제13회 임산부의 날(10월 10일)을 맞아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강원도간호사회는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건강한 아기의 성장과 인성발달을 위해 2002년부터 '건강한 모유수유아 선발대회'를 개최해왔다.

대회를 통해 모유수유의 장점과 중요성을 홍보하고, 모유수유를 실천한 가족들을 격려하는 등 저출

산 극복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했다. 모유수유를 실천하는 가족들이 다양한 육아정보를 습득하고, 유대를 맺을 수 있도록 만남의 장을 제공했다.

또한 강원도 내 간호교육기관의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건강자조교실을 운영해 건강증진 교육을 실시하고, 인구감소와 출산을 저하로 인한 심각성을 인식시키는 데 힘썼다.

최수정 기자 sjchoi@

배영숙 광주시 건강정책과 계장 '국무총리 표창'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배영숙 광주광역시 건강정책과 계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시상식은 10월 10일 보건복지부가 주최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에서 진행됐다.

배영숙 계장은 1995년 공직에 입문해 좁은 광주광역시에 몸담아왔다. 정신보건시설 확대·운영에 참여하고, 지역 정신보건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광주광역시 통합정신건강관리 전담체계 마련에 기여했다.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발견하고, 개인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 제공으로 정신건강관리 체



계 활성화를 도모했다. 정신질환 민영화 예방,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와 재활 지원, 종독예방관리, 자살예방관리 등에 헌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배영숙 계장은 현재 광주시간호사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최수정 기자 sjchoi@

서울시간호사회 '간호현장에서의 인권' 학술대회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제11회 서울간호학술대회를 '간호현장에서의 인권' 주제로 10월 16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논문에 대한 시상식이 이뤄졌다. 대상은 '자동화된 다제내성균 위험사정시스템의 개발과 평가'(하은영·가톨릭대 박사과정)가 수상했으며, 상금 100만원을 받았다.

최우수상 4편(상금 각 70만원), 우수상 6편(각 50만원), 장려상 9편(각 30만원), 포스터상 5편(각 10만원)이 선정됐다.

이어 '인권의 개념' 주제로 백경희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실무현장에서의 간호인권' 주제로



박진호 노무법인 한수 대표노무사가 강연했다. 의료의 특수성과 인권, 노동법상 근로자의 권의 등에 대해 설명했다.

박인숙 회장은 개회사에서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의 인권은 환자의 인권만큼 강조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면서 "간호서비스의 질 제고와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사들의 인권은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 박홍준 서울시의사회장이 참석해 축사를 했다.

주혜진 기자 hjjoo@

독자주소 변경 ☎ 02) 2260-2571

게시판

이화여대 이화간호과학연구소 학술대회

이화여대 이화간호과학연구소(소장 김미영)와 간호대학은 학술대회를 '간호교육 패러다임 전환 및 재구성' 주제로 12월 7일 오전 9시30분 이대 웰컴관 116호에서 개최한다. '간호교육에서의 Design Thinking' '상담과 심리치료의 긍정심리학적 접근' '보건의료교육 변화에서의 간호교육' '가상현실을 활용한 메타인지 향상 전략' 등 주제강연, 등록비 일반 5만원, 학생 4만원.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my.ewha.ac.kr/rins/) 참조. 문의 이화간호과학연구소 02)3277-3262.

서울시간호사회 한마음 장학금 접수

서울시간호사회(회장 박인숙)는 제56회 한마음 장학금 신청자를 접수받는

다. 간호사회 회원으로 2018년을 포함해 3년 이상 등록했고, 대학원 석·박사 과정에 다니고 있으며 2018년도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사람 대상. 박사과정 5명에게 150만원씩, 석사과정 15명에게 100만원씩 지원. 기존 한마을 장학금 수혜자는 대상에서 제외. 11월 5일 오후 5시까지 신청. 홈페이지(www.seoulnurse.or.kr) 참조. 02) 853-5497.

한국중환자간호학회 추계 학술세미나

한국중환자간호학회(회장 이영희)는 2018년 추계 학술세미나를 '비폭력 대화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주제로 11월 16일 오전 9시10분 성균관대 '에' 강의장(삼성생명 일원역 빌딩 B동 9층)에서 개최한다. 한국비폭력대화센터 이은영 강사가 진행한다. 한국중환자간호학회 홈페이지에서 10월 31일까지 사전등록.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s://ksccn.jams.or.kr) 참조.

2018년 의료인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안내

의료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구분	내용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란	간호사의 전문성 및 직업윤리의식 함양을 위하여 의료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보수교육으로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함
필수과목 내용	감염관리, 의료법령, 의료윤리, 폭력·성희롱·성폭력 예방
필수과목 이수시간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시간 이상
필수과목 이수 의무화 시행일자	2018. 1. 1. (2019년 면허신고 대상자부터 적용)
필수과목 이수 인정기준	1. 필수과목(2시간 이상)이 포함되어 있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2. 대한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온·오프라인 필수과목(2시간 이상)을 이수한 경우 - 이는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며 필수과목 이수만 인정 * 필수과목 프로그램은 KNA에듀센터(edu.kna.or.kr)에서 확인



간호학 전문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시작부터 합격까지 '간호교육연수원'은 다릅니다.



합격기원 응원 현장

- ✓ 임상생활 또는 현재생업을 병행할 수 있는 학습시스템 구축
- ✓ BMW (버스, 전철, 도보) 자투리 시간 활용을 위한 온라인 + 모바일 무상 제공
- ✓ 혼자서가 아닌 전문 학습 담임제에 의한 1:1 매니지먼트 서비스 제공



5단계 학습 시스템 제공

간호직공무원/ 보건진료직공무원/ 보건직공무원/ 보건복지부공무원 / 보건교사 / 공사·공단 취업 / RN-BSN / NCLEX-RN / 병원코디네이터

무료상담 080-529-0909, 080-913-0909

www.ganhohak.co.kr

